

學生에 의한 大學授業評價의 問題

韓 宗 哲

(延世大 心理學科 副教授)

大學이 새로운 知識을 생산하고, 이러한 知識이 다시 가르치는 教育者들에게還元되어 활용될 때, 大學의 發展의 變化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授業에 대한 評價活動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情報은 앞으로의 전반적인 大學教育의 質的 改善에 貢獻할 것이다.

1. 序

大學에 대한 社會的 期待와 要求가 증대됨에 따라 이제 大學의 問題는 大學人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특히 大學人口의 증가와 大學機構의 확장으로 전반적으로 大學機構의 變化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變化는 대학으로 하여금 그들 기관의 效率性 및 能率性의 評價方案을 講究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로 대학에서의 授業에 대한 評價(그것이 학생에 의한, 教授自身에 의한, 동료교수에 의한, 大學行政家에 의한 評價이든 간에) 方案의 모색은 高等教育기관의 효율성과 能率성을 提高시키는 하나의 準據를 찾는 일이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授業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授業에 대한 妥當하고 信賴性 있는 評價活動은 大學社會의 특징인 學問적 卓越性의 추구하고 專門性의 향상이라는 문제와도 직접적인 關聯性

이 있다. J. Gardner의 말처럼 學問적 卓越性이란 대학의 目標, 學生 그리고 教育課程의 맥락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教育的 經驗의 추구에 달려 있다면,¹⁾ 대학생들이 大學生活에서 가지는 모든 教育的 經驗은 수업을 통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학의 수업을 質的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授業評價의 문제는 過去에서부터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면서도 언제나 不滿과 不平의 대상이 되어 왔던 現實的인 問題이다.

그간에 大學授業의 質的 향상의 문제에 대한 必要性이나 重要性이 강하게 인식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必要性 및 중요성의 인식이란 精確하고 근거 있는 타당한 資料나 客觀的인 準據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授業自體의 本質에 대한 知覺과 授業活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特정한 조건에 대한 막연한 直覺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실제로 대학의 授業에서 무엇을 평가하고 어

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본래 授業活動이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종류의 意思決定을 포함하는 하나의 복잡한 과정이므로 수없이 많은 變因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또한 거기에는 價値判斷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이러한 價値의 成就를 평가한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大學教育의 전반적인 質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講義의 質的 改善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의 必要性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J.A. Fishman의 말은 우리에게 매우 共感을 주고 있다. 즉 「우리가 授業活動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들의 만족이 거기에 있으며, 그리고 사회의 不滿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無知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無知란 모든 授業活動을 평가하는 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의 節次에 관련된 知識에 대한 無知이며, 또 다른 하나는 授業狀況에 작용하는 여러 變因들의 傾向性에 대한 情報의 不足을 의미한다」²⁾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本篇에서는 그간에 이루어졌던 외국의 實證的 研究(실제로 우리 나라 대학의 경우, 이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임)의 結果에 기초하여, 學生에 의한 授業評價方法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II. 授業評價의 目的과 準據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 授業評價는 먼저 學生들에게는 어떤 敎科目을 선택하여 受講할 것인가에 대한 指針를 마련하고, 그리고 敎授들은 자기가 담당한 敎科目的 授業을 質的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즉 K.E. Eble³⁾의 말처럼 대학의 授業評價의 目的은 첫째 機關的 目的으로 敎授(faculty)들의 能力遂行의 效率性 정도를 알아보는 데 있고, 둘째는 個人的인 目的으로 授業方法을 개선하는 데 있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목적은 자기 분리된 것이 아니라 相互補完的인 關係에 있다. 前者의 機關的 目的은 개인적 목적을 발전·향상시키는 데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며, 後者의 개인적

목적은 機關的 目的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目的을 좀 더 具體的으로 보면, ① 授業的 質的 향상 ② 타당한 行政的 意思決定 ③ 敎科目 및 講師選擇을 위한 유용한 情報의 수집 ④ 委任이나 재훈련을 위한 人事資料의 目錄 작성 ⑤ 敎科課程이나 學習프로그램의 평가 ⑥ 大學敎員의 專門的 遂行度에 대한 外部 弘報資料의 수집 ⑦ 授業活動에 관련된 變因들에 대한 研究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⁴⁾ 결국 대학에서의 授業評價는 敎授 自身들의 專門的 成長을 도모하려는 노력과 敎授學習活動을 위한 바람직한 環境을 조성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떤 準據로 무엇을 측정하며, 또한 어떤 評價方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授業活動이란 價値判斷을 내포한 복잡한 人間現象이므로 객觀적인 단 하나의 準據로서 수업의 효율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授業評價 過程에서 먼저 授業評價에 사용될 準據나 要因이 무엇인가를 究明하고, 이러한 準據나 要因이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가를 결정하며, 그 다음으로 授業評價에 사용될 準據나 要因의 상대적인 重要性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選擇된 準據나 要因에 관련하여 效率的인 評價方案을 構想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개의 準據나 要因이 대학에서의 모든 수업의 효율성을 究明하는 데 一律的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敎科目的 專攻分野 및 性格, 敎授方法, 敎科目的 內容 그리고 學級의 크기 등 여러 가지 變因에 따라 授業의 效率性을 측정하는 準據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大學講義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에 대하여 지난 1943년부터 1973년까지 이루어졌던 11個의 實證的 研究를 分析·綜合한 結果⁵⁾를 보면 ① 敎授의 講義技術 ② 親和關係 ③ 敎科目的 構造 ④ 集團 構成員 간의 相互作用 ⑤ 敎科目的 難易度 등 5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研究에서도 ① 敎科目에 대한 敎授의 知識 정도 ② 敎科目的 組織 ③ 수업에 대한 敎授의 熱意 및 關心, ④ 學生들에 대

한 理解心 등⁶⁾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研究結果가 비슷하였다.

앞으로 大學授業의 효율성을 구명하기 위한 準據를 찾는 일은 授業活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여러 變因에 따른, 계속적이고 과학적인 研究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Ⅲ. 授業에 대한 學生評價方法

大學에서 교수들의 강의를 受講하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妥當하게 그리고 信賴性 있게 강의를 評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異見이 있어 왔다. 즉 大學 授業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肯定的으로 보는 입장과 이를 否定的으로 보는 입장이다.

먼저 肯定的인 입장에서의 主張은 대학에서의 강의의 效率性이란 실제로 教室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受講하는 학생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의 一致性의 程度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다른 어떤 評價方法보다 더 妥當하다는 것이다. 즉 教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직접적인 情報의 資源은 그 教室의 授業活動에 참여했던 教授와 學生들이므로 거기서 실제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한 학생들의 정보는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에서 수업의 質을 판단하는 데 그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R.I. Miller⁷⁾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만일 大學 講義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학생들에 의한 評價方法일 것이다. 비록 여러 가지 評價方法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가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여 얻는 결과보다는 더 信賴롭고 妥當하겠지만, 學生들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들이 받은 수업을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反面에 大學授業에 대한 學生評價의 否定的인 立場에 대하여 F. Costin⁸⁾ 등은 近來에 美國 大學에서 授業에 대한 학생들의 評價方法이 점차로 쇠퇴해 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理由 中の 하나가 바로 그 結果의 妥當性의 不足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授業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資質이 缺如되어 있으며, 더구나 授業의 效果란 그것이 평가되어지는 時期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간에 授業에 대한 學生評價의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結果를 分析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한 評價方法이 批判을 받고 있다. 첫째로는 어느 한 教科目에서 학생이 취득한 學點은 그 教科目の 講義에 대한 效率性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可能性이 매우 크기 때문에 授業에 대한 學生들의 評價結果의 妥當性이 전반적으로 問題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일반적으로 授業評價에서 學生들이 사용하는 評價의 準據가 부적절한 때가 많으며, 또한 너무나 制限된 準據에 의하여 授業을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大學講義에 대한 학생들의 評價方法의 有用性은, 授業의 消費者로서의 학생들은 授業의 質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資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肯定的인 立場과 아직까지는 教授의 卓越性(teaching effectiveness)과는 無關한 요인들이 학생들의 評價結果에 크게 반영된다는 否定的인 立場이 대립되고 있다.

그간에 學生에 의한 授業評定 尺度의 信賴度와 妥當度는 많은 研究를 통하여 구명되었다. 물론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授業評定 尺度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授業評定 尺度의 內容이 거의 동일하였다.

먼저 學生評定 尺度의 信賴度는 두 가지 방향에서 檢證되었는데 그 하나는 授業에 대한 學生評定 結果의 一貫性 내지 安全性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學生評定 尺度의 문항들간의 內的 一貫性의 程度에 관한 것이었다. 즉 前者는 학생들의 評定結果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같은 評定結果를 보여 주고 있는가에 대한 再檢査信賴度의 檢證이었고, 後者의 경우는 學生評定 尺度의 문항들을 半分하여, 반분된 문항들의 反應間에 一貫性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보는 半分 信賴度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여러 研究의 結果에 의하면 授業에 대한 學生評定 尺度의 評定結果의 一貫性 내지 安全性이나, 半分된 問項들 間의 內的 一貫性은 比較的 높았다.⁹⁾

반면에 授業에 대한 學生評定 尺度의 妥當度는 거의 準據關聯 妥當도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즉 大學授業에 대한 學生들의 評定點數와 教授自身, 동료교수 및 大學行政家들의 評定點數間의 一致性의 정도(相關關係)를 구명하거나 혹은 교수(faculty)의 變因(에컨대, 經歷, 經驗, 職位等)과 學生評定點數間의 相關關係라든가 그리고 學生들의 評定點數와 이들의 學業成就度間의 相關을 구명하여 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¹⁰⁾

본래 準據關聯 妥當도란 현재상태에서 한 評價道具의 결과와 準據變因과의 일치성 정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므로, 평가도구의 使用目的이나 주어진 狀況, 그리고 調査 對象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授業에 대한 學生評定 尺度의 準據 關聯 妥當도가 어느 정도로 높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一律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大學의 教室狀況에서 授業의 效率性을 평가하는 하나의 評價道具로서는 比較의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우리의 경우는 대학에서의 授業評價의 尺度에 관한 實證的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評價尺度의 信賴度나 妥當도의 문제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課題이지만 授業에 대한 學生들의 評價尺度가 大學授業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正當한 教育的 目的만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이미 그러한 평가도구의 顔面 妥當度(face validity)는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V. 結 語

大學에서의 學生들에 의한 授業評價 方法에 관한 많은 文獻의 研究와 經驗的 研究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론적인 根據나 實證的인 결과들이 완전히 合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 一貫性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간의 많은 研究結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대학교육의 質의 改善을 위한 授業評價 方案의 科學的 研究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이러한 大學講義에 대한 과학적인 評價의 結果가 대학의 教授 效率性(teaching effectiveness)을 提高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授業評價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대학에서의 授業活動이나 교과목의 質에 대한 信賴롭고 妥當한 情報를 제공하여 주며 이러한 情報는 教授(faculty) 개개인이 자신들의 教授方法을 改善하는 데 規範的 資料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授業에 대한 이러한 評價方法이 갖는 本質的 目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大學에 있어서의, 教授(faculty)들의 강의 시간수의 適正性 유지, 授業活動을 위한 諸般 施設의 完비, 教授 및 학습을 위한 專門圖書, 雜誌 및 器具의 확보 그리고 학급당 수강 학생수의 適正性 등 授業活動과 관련된 여러 가지 要件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評價體制를 받아들여 시행할 수 있는 大學의 風土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大學의 風土造成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수들의 專門的 성장이나 향상을 위한 강한 熱意와 배우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의 授業에 대한 평가의 判斷能力이 성숙됨으로써 기대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의 수업의 評價體制가 해당국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相互協力 體制 속에서 시행될 때 우리는 大學教育의 전반적인 質을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授業에 대한 評價結果가 수업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資料로서가 아니라, 授業活動에 제한을 주는 위협적인 要因으로서 활용되거나 大學行政家의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된다면, 이는 분명히 大學教育의 質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대학이 좀더 많은 새로운 知識을 생산하고, 그러한 知識이 다시 가르치는 教育者들에게還元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때 우리는 大學教育의 發展的 變化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大學人들의 자율적인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授業에 대한 評價活動은 전반적인 大學教育의 質을 개선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 틀림없다. *

<註>

- 1) A.M. Cartter, "University Teaching and Excellence," in C.B.T. Lee (ed.), *Improving College and University*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Education, 1967), p. 151에서 再引用.
- 2) M.E. Leahy Cleary, *Student Evaluation of Faculty at West Chester State College of Pennsylvania: an Investigation of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elected Institutional and Student Variables* (Unpublished, Ed. D. Dissertation, The George Washington Univ., 1971), p. 1에서 再引用.
- 3) K.E. Eble, *The Recognition and Evaluation of Teaching* (Satt Lake City: Project to Improving College Teaching, 1970), pp. 15—16.
- 4) W.J. Genova, M.K. Medoff, R. Chin & G.B. Thomas, *Mutual Benefit Evaluation of Faculty and Administrations in Higher Education*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ing Co., 1976), pp. 8—10.
- 5) J.A. Kulik and W.J. Mckeachie, "The Evaluation of Teachers in Higher Education," in F.N. Kerlinger (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Vol.3.* (Itasca: Peacock Publishers, 1975), p. 128.
- 6) P.L. Crawford and H.L. Bradshaw, "Perception of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University Teachers: A Scaling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68, Vol. 28, pp. 1079—1085.
- 7) R.I. Miller, *Developing Programs for Faculty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5), p. 30.
- 8) F. Costin, W.T. Greenough & R.J. Menges, "Student Rating of College Teaching: Reliability, Validity and Usefulnes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71, Vol. 41, p. 511.
- 9) 信頼도에 관한 研究로서는
G.D. Lovell and C.F. Haner, "Forced-Choice Applied to College Faculty Rating,"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55, Vol. pp. 291—304.
L.M. Aleamoni and R.E. Spencer, "The Illinois Course Evaluation Questionnaire: A Description of Its Development and a Report of Some of Its Resul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3, Vol. 33, pp. 669—684.
J.A. Centra,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nd Alumni Rating of Teacher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4, Vol. 34, pp. 321—325.
F. Costin, "A Graduate Course in the Teaching of Psychology: Description and Evalu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1968, Vol. 19, pp. 425—432.
- 10) 準據關聯妥當도에 관한 研究로서는
J.A. Centra, *The Utility of Student Rating for Instructional Improvement* (New Jersey: Educational Testing Service, 1972), pp. 31—51.
W.R. Kennedy, "Grades Expected and Grades Received—Their Relationship to Students' Evaluation of Faculty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75, Vol. 67, pp. 109—115.
W.J. Mckeachie, Y. Lim & W. Mann, "Student Ratings of Teacher Effectiveness: Validity Stud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71, Vol. 8, pp. 435—445.
M. Rodin and B. Rodin, "Student Evaluation of Teacher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973, Vol. 5, pp. 5—9.
A.M. Sullivan and G.R. Skanes, "Validity of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and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Instructo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74, Vol. 66, pp. 584—590.